
2016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6. 12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I . 2016년도 청렴도 측정 개요	1
II . 2016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7
1. 종합청렴도	7
2. 내부청렴도	12
3. 외부청렴도	15
4. 정책고객평가	18
5. 감점지표	22
III . 이슈별 분석	24
IV . 향후 계획	25
《붙임1》 청렴도 측정대상 공공의료기관 현황	26
《붙임2》 공공의료기관 유형별 청렴도 점수 비교표	27

I 2016년도 청렴도 측정 개요

1. 실시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2. 실시 현황

- (연혁) 201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최초로 포함되었으며, 2013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특화모형 개발 이후 매년 측정

< 연도별 측정대상 기관 수 >

측정시기	2010년	2011년	2013년	2014~16년
기관 수	24개 기관	24개 기관	46개 기관	45개 기관

- (측정대상기관) 국립대학병원(10), 치과병원(3)*, 의료원(29), 기타 병원(3)** 등 총 45개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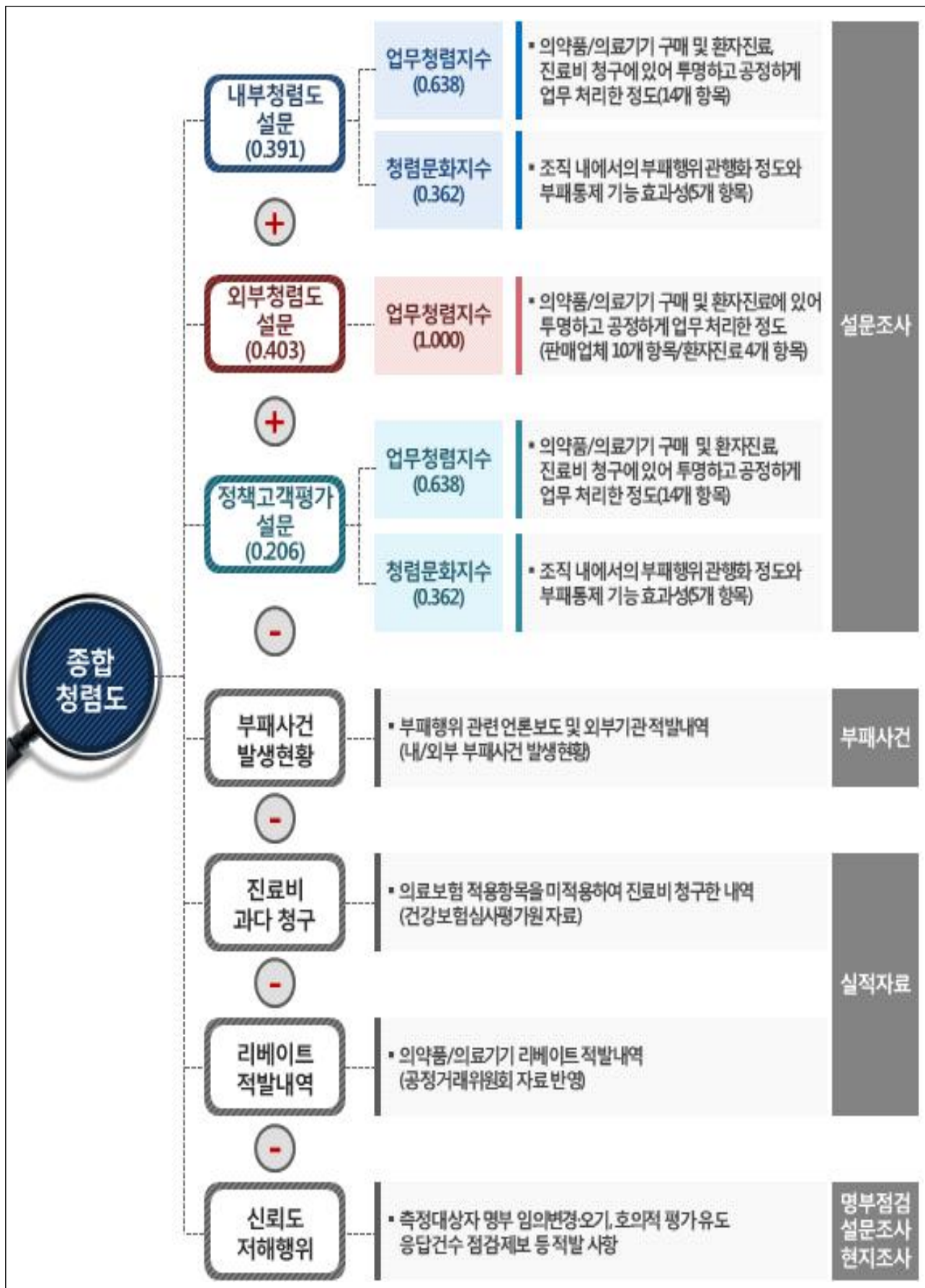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 국립암센터, 보훈병원, 원자력병원은 기타병원으로 분류

3. 측정 모형

- 설문조사 결과(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를 가중합산)에 감점항목(부패사건 발생현황, 진료비 과다청구, 리베이트 적발내역, 신뢰도 저해행위)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출
- 공공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의약품 의료기기 리베이트 및 진료비 과다청구 등 부패 취약분야에 초점을 두고 모형 구성

< 2016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 >



4. 조사 방법

□ 설문조사

○ 설문조사 대상자(총 7,295명)

- 내부청렴도 : 3,133명

※ '16.6.30.현재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간호사·행정직종 등 소속직원(직종별 비율에 따라 표본 추출하여 설문)

- 외부청렴도 : 3,186명 (판매업체 936명, 환자 보호자 2,250명)

※ 판매업체 : 최근 1년간('15.7.1.~'16.6.30.) 측정대상기관과 의약품·의료기기 판매계약 체결 또는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관계자

※ 환자의 보호자 : 환자의 진료내역 등 의료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근 1년 간('15.7.1.~'16.6.30.) 2일 이상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를 조사

- 정책고객평가 : 976명 (이직·퇴직자 795명, 관리·감독기관 181명)

※ 이직·퇴직자 : 해당 의료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 이직·퇴직한 직원

※ 관리·감독기관 :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광역자치단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 해당 의료기관의 상위 관리·감독기관 업무 담당자

○ 설문조사 개요

- 최근 1년간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을 설문

- 전화조사, 온라인(이메일, 스마트폰) 조사 병행

- 조사기간 : '16년 9월 ~ 11월

□ 감점

○ 부패사건 발생현황

- 부패금액 및 내용, 관행화·조직화 정도, 부정적 파급력 정도를 전문가 평가에 의해 점수화

○ 진료비 과다 청구

- 의료보험 적용 항목을 미적용하여 진료비를 청구한 내역을 점수화

○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 적발 내역

-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공의료기관별 리베이트 적발 건수 및 금액을 점수화

○ 신뢰도 저해행위

- 호의적 평가유도 여부에 대한 설문 응답 결과, 명부 및 표본 오염행위 등의 적발 사항을 점수화

5. 주요 개선 내용

□ 청렴도 측정모형의 타당도 제고

○ 금년 시행된 청탁금지법 취지를 반영하여 내부청렴도 및 정책 고객평가에 부정청탁 관련 설문 추가

- (기존) 기관의 청탁현황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 현황을 참고 문항으로 시험측정

- (변경)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항목을 청렴문화지수에 추가

- 환자의 진료·치료에 대한 이의제기 수용성을 내부청렴도·정책
고객평가 설문에 추가하여 ‘환자진료’ 영역 내실화
- (기존) ‘환자진료’ 영역을 단일 항목(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으로 구성
- (변경) ‘환자의 이의제기 수용·구제절차 충분성’ 항목을 내부
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환자진료’ 영역에 추가

□ 정책고객평가의 신뢰도 제고

- 응답률이 저조한 관리·감독기관 표본 수 축소 및 리베이트
경험률이 높게 나타나는 이직·퇴직자 표본 수 확대
- (기존) 의료기관별 관리·감독기관 10표본, 이직·퇴직자 10표본
할당하였으나 관리·감독기관 평균 4.5명 응답(‘15년 기준)
- (변경) 기관별 관리·감독기관 5표본, 이직·퇴직자 20표본 할당

□ 부패사건 발생현황 반영 확대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부패사건 반영범위 확대
- (기존)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의 부패행위를
중심으로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화
- (변경)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부패사건 점수화 대상 부패행위로
명시적으로 포함

요 약

45개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평균 7.68점(10점 만점)
전년(7.76점) 대비 평균 0.08점 하락

□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 (영역별) 청렴문화지수(6.70점)가 업무청렴지수(8.12점) 보다 낮은 수준
- (설문대상별) 판매업체 평가가 가장 높고 이직·퇴직자가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
* 판매업체(9.67) > 관리·감독기관(8.70) > 환자보호자(8.09) > 내부직원(7.12) > 이·퇴직자(5.85)
- (유형별) 치과병원(8.13점) > 의료원(7.85점) > 기타병원(7.51점) > 대학병원(7.10점)
- 부패 경험률(리베이트 수수)은 전체 응답 평균 30.5%로 전년(22.0%) 대비 증가
* 이·퇴직자(76.9%) > 내부직원(29.3%) > 판매업체(1.2%) > 관리·감독기관(0.6%)

□ 분야별 측정 결과

- 내부청렴도(의사, 간호사, 행정직 등 소속직원 대상 설문)는 7.12점 * '15년 7.01점
- 공통경비 협찬 수수 직·간접경험(5.86점), 연고주의에 의한 인사관리(5.99점),
향응 수수 직·간접경험(6.06점), 자체 감사기능 효과성(6.09점) 점수가 저조
- 외부청렴도(판매업체, 환자 보호자 대상 설문)는 8.87점 * '15년 8.79점
- 환자 이의제기 수용·구제절차 충분성(7.49점), 안내절차 충분성(7.75점) 점수가 저조
- 정책고객평가(이직·퇴직자, 관리·감독기관 담당자 대상 설문)는 7.43점 * '15년 8.08점
- 연고주의에 의한 인사관리(4.33점), 부당하거나 사적인 업무지시(5.49점), 환자
이의제기 수용·구제절차 충분성(5.69점),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5.88점), 부
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5.93점) 점수가 저조

□ 감점지표 적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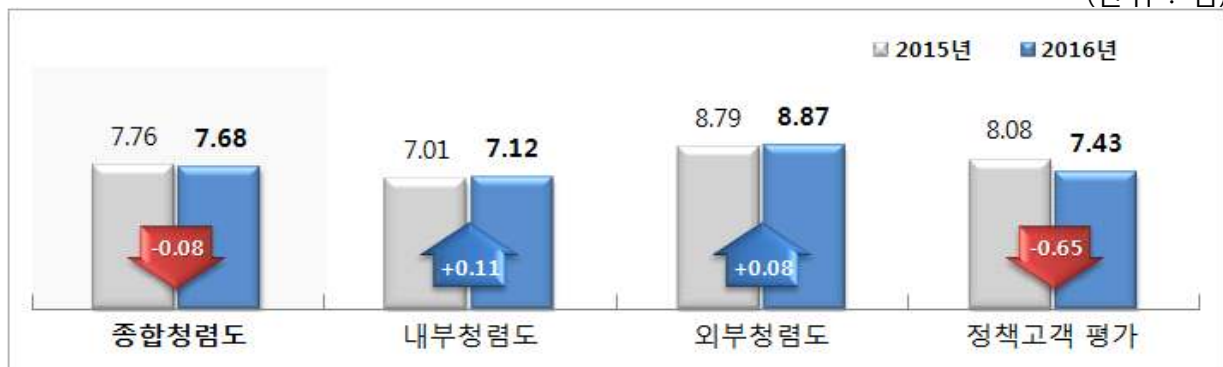
- 부패사건 발생현황(15개 기관, 평균 0.11점 감점), 진료비 과다 청구(33개 기관,
평균 0.06점 감점), 공정위의 리베이트 적발내역(2개 기관, 평균 0.06점 감점), 신뢰도
저해행위(36개 기관, 평균 0.16점 감점) 등 4개 지표 적용
-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금품수수의 경우,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에 4건,
리베이트 적발내역 2건 반영 ('15년 부패사건 발생현황 2건 리베이트 적발내역 2건)
- 유형별 평균 감점은 기타병원(0.33점) > 대학병원(0.26점) > 의료원(0.21점)
> 치과병원(0.12점) 순

Ⅱ 2016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1. 종합 청렴도 1)

- 전체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68점으로, 전년(7.76점) 대비 0.08점 하락
- '15년 대비 내부청렴도(7.01→7.12)와 외부청렴도(8.79→8.87)는 소폭 상승한 반면, 정책고객평가(8.08→7.43)는 하락
- 내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는 외부청렴도에 비하여 낮은 수준

< 종합청렴도 및 각 영역별 점수 비교('15 ~ '16년) > (단위 : 점)



- 설문대상별로는 판매업체(외부청렴도) 평가가 가장 긍정적이며, 이직·퇴직자(정책고객평가)가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

< 설문대상별 종합청렴도 >

설문 대상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판매업체	환자보호자	내부직원	관리·감독기관	이직·퇴직자
평균 점수 (15년 점수)	9.67점 (9.67점)	8.09점 (7.89점)	7.12점 (7.01점)	8.70점 (9.20점)	5.85점 (6.67점)

- 1) 종합청렴도는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설문조사결과를 가중 합산한 후, 감점(부패사건발생현황, 진료비과다청구, 리베이트적발내역, 신뢰도저해행위)을 반영한 점수

○ 측정영역별로는 업무청렴지수(8.12점)가 청렴문화지수(6.70점)보다 높은 수준

- 업무청렴지수 : 의약품/의료기기 구매(8.32점) > 진료비 청구(7.85점) > 환자진료(7.45점)

- 청렴문화지수 : 부패방지제도(6.63점) > 조직문화(6.22점)

< 지수별 점수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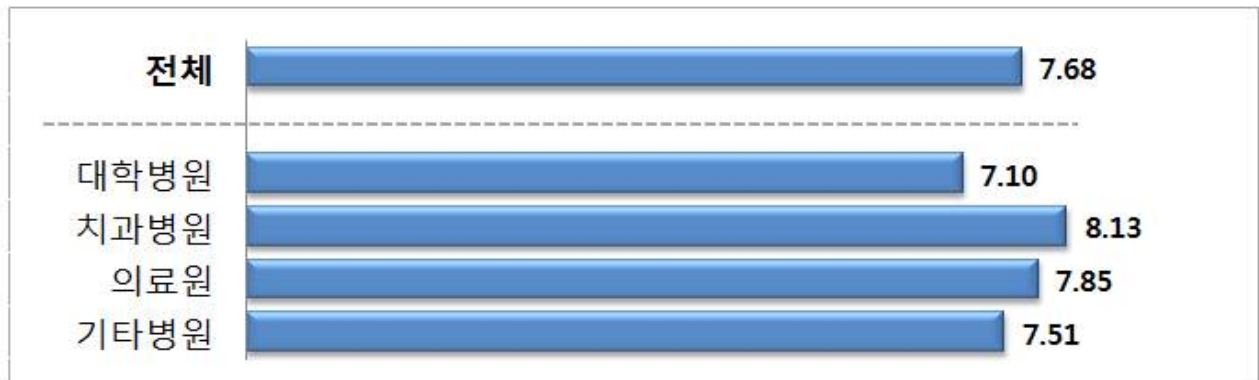
(단위 : 점)



□ 기관유형별로는 치과병원(8.13점)이 가장 높고, 대학병원(7.10점)이 가장 낮음

<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 >

(단위 : 점)



< 기관유형별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

(단위 : 점)



<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 등급2) >

('16년도 점수, '15년 대비 개선도)

구분	대학병원(10개) 평균 7.68, 표준편차 0.51	의료원(29개) 평균 7.68, 표준편차 0.51
I 등급	-	강원도 삼척의료원(8.64점, +0.20) 경상남도 마산의료원(8.46점, +0.07) (8.45점 이상)
II 등급	-	전라북도 남원의료원(8.32점, +0.14) 경상북도 포항의료원(8.21점, -0.33) 제주도 제주의료원(8.20점, +0.12) 충청남도 서산의료원(8.14점, -0.01) 전라남도 강진의료원(8.12점, +0.03) 충청남도 공주의료원(8.12점, +0.35) 대구광역시 의료원(8.07점, -0.04) 전라남도 목포의료원(8.07점, -0.16) 경상북도 울진군의료원(8.06점, -0.15) 강원도 강릉의료원(7.99점, +0.08) 경상북도 안동의료원(7.97점, +0.06) 전라북도 군산의료원(7.94점, -0.34) 충청남도 천안의료원(7.94점, +0.12) 충청북도 청주의료원(7.94점, -0.26) (7.94~8.45점 미만)
III 등급	충북대학교병원(7.70점, +0.29) 제주대학교병원(7.59점, +0.32) (7.42~7.94점 미만)	강원도 영월의료원(7.90점, -0.36) 서울특별시 의료원(7.89점, +0.40) 인천광역시 의료원(7.84점, -0.26) 전라남도 순천의료원(7.78점, -0.40) 충청남도 홍성의료원(7.71점, -0.09) 강원도 속초의료원(7.48점, -0.13) 경기도 의료원(7.47점, -0.05) (7.42~7.94점 미만)
IV 등급	서울대학교병원(7.40점, -0.14) 강원대학교병원(7.22점, +0.21) 충남대학교병원(7.14점, -0.25) 경북대학교병원(6.99점, +0.47) (6.91~7.42점 미만)	제주도 서귀포의료원(7.34점, -0.33) 강원도 원주의료원(7.29점, -0.02) 국립중앙의료원(7.26점, -0.29) 충청북도 충주의료원(7.24점, +0.02) 부산광역시 의료원(7.22점, -0.47) 경상북도 김천의료원(7.01점, -1.06) (6.91~7.42점 미만)
V 등급	부산대학교병원(6.90점, -0.50) 경상대학교병원(6.85점, -0.19) 전북대학교병원(6.81점, -0.26) 전남대학교병원(6.39점, -1.10) (6.91점 미만)	(6.91점 미만)

2) 1등급/5등급 : 기관전체 평균점수보다 기관전체 표준편차의 1.5배 이상 점수가 높거나 낮은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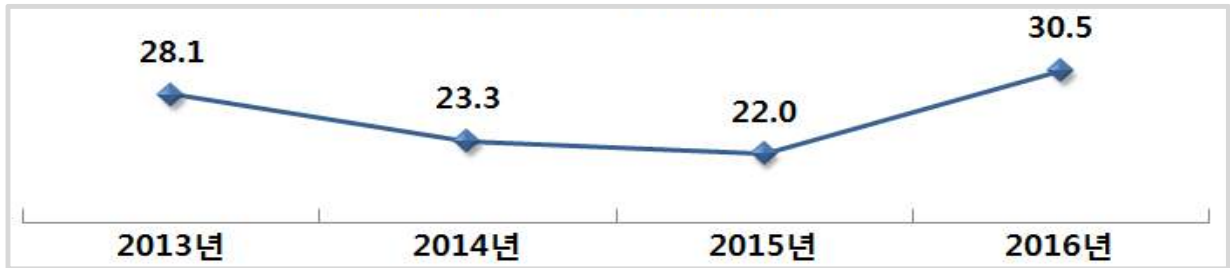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 경험률]

□ 리베이트 '수수' 경험(간접경험 포함)

-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 수수 경험률은 전체 응답자 중 30.5%로 집계('15년 대비 8.5%p 증가)

< 리베이트 수수 경험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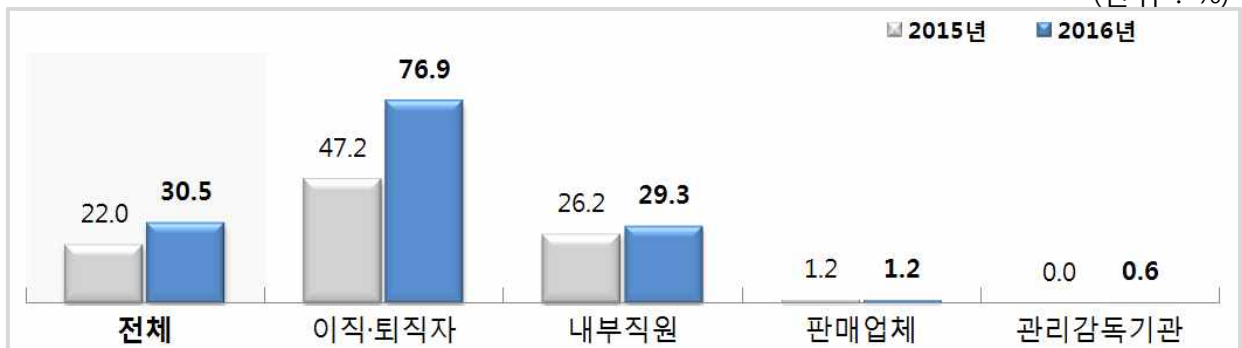
(단위 : %)



- 설문대상자별 리베이트 경험률은 이직·퇴직자 76.9%, 내부직원 29.3%, 판매업체 1.2%, 관리·감독기관 0.6% 순

< 설문대상자별 리베이트 수수 경험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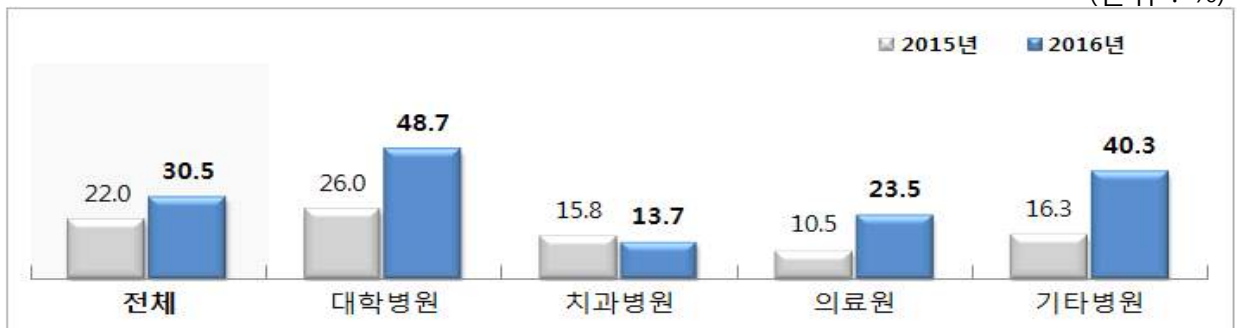
(단위 : %)



- 기관유형별로는 대학병원의 경험률(48.7%)이 가장 높으며, 기타병원(40.3%), 의료원(23.5%), 치과병원(13.7%) 순

< 기관유형별 리베이트 수수 경험률 >

(단위 : %)



□ 리베이트 수단으로는 공통경비 수수(평균 8.5%)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향응수수(7.4%), 금전수수(5.8%), 편의수수(4.8%), 물품수수(4.0%) 순으로 집계

- 모든 기관유형에서 공통경비 수수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응수수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리베이트 종류별 비율 분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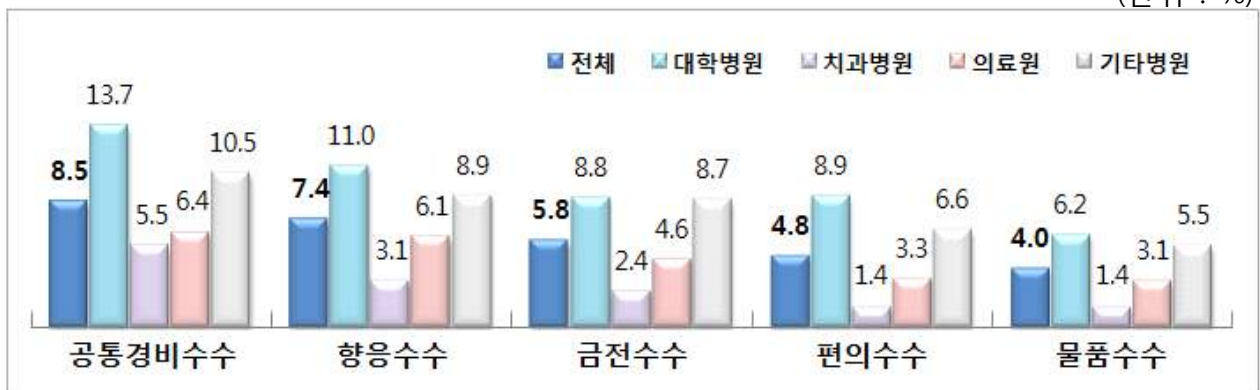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공통경비수수		향응수수		금전수수		편의수수		물품수수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전 체	8.5	1위	7.4	2위	5.8	3위	4.8	4위	4.0	5위
대학병원	13.7	1위	11.0	2위	8.8	4위	8.9	3위	6.2	5위
치과병원	5.5	1위	3.1	2위	2.4	3위	1.4	4위	1.4	4위
의료원	6.4	1위	6.1	2위	4.6	3위	3.3	4위	3.1	5위
기타병원	10.5	1위	8.9	2위	8.7	3위	6.6	4위	5.5	5위

※ '15년도 리베이트 종류별 평균 비율 : 공통경비수수(5.2%) > 향응수수(3.6%) > 금전수수(2.4%) > 편의수수(2.3%) > 물품수수(1.5%)

< 리베이트 종류별 비율 분석 >

(단위 : %)



2. 내부 청렴도

- 내부청렴도는 공공의료기관 내부직원(의사, 간호사, 행정직)을 대상으로 업무청렴지수와 청렴문화지수로 구성(총 19개 항목)된 설문조사 결과에 내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 감점을 적용하여 도출



- 업무청렴지수는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환자진료, 진료비 청구 등 3개 부패취약업무에 대한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으로 구성
- 청렴문화지수는 조직문화와 부패방지제도 등 2개 영역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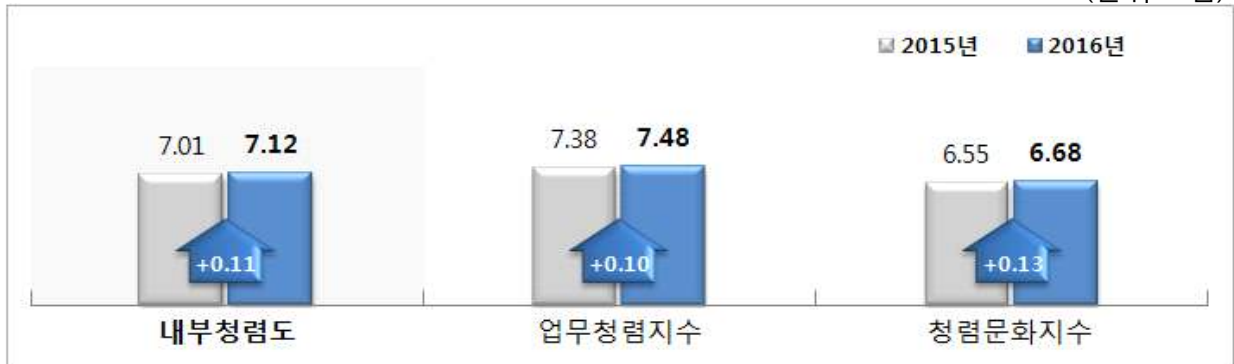
< 내부청렴도 세부측정항목 현황 >

평가영역(가중치)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15년대비
업무 청렴 지수 (0.638)	의약품/ 의료기기 구매 (0.442)	인식 (0.428)	금전 수수 인식 (0.216)	7.92	+0.12
			물품 수수 인식 (0.198)	8.50	+0.61
			향응 수수 인식 (0.211)	7.92	+0.09
			편의 수수 인식 (0.196)	8.21	+0.25
			공통경비 협찬 수수 인식 (0.179)	7.89	+0.09
		경험 (0.572)	금전 수수 직·간접경험 (0.215)	6.60	+0.70
			물품 수수 직·간접경험 (0.195)	7.00	+0.73
			향응 수수 직·간접경험 (0.212)	6.06	+0.05
			편의 수수 직·간접경험 (0.200)	6.78	+0.48
			공통경비 협찬 수수 직·간접경험 (0.178)	5.86	0.00
	환자진료 (0.284)	인식(1.000)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0.664)	7.67	-0.15
환자 이익제기 수용·구제절차 충분성 (0.336)			7.63	신규	
진료비 청구 (0.274)	인식(0.447)	진료비의 허위·부당 청구 인식 (1.000)	8.57	-0.15	
	경험(0.553)	진료비의 허위·부당 청구 경험 (1.000)	7.17	+0.10	
청렴 문화 지수 (0.362)	조직문화 (0.513)		부당하거나 사적인 업무지시 (0.382)	7.04	-0.08
			연고주의에 의한 인사관리(0.343)	5.99	-0.06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0.275)	7.30	신규
	부패방지제도 (0.487)		기관 운영의 투명성 (0.591)	6.96	+0.04
			자체 감사기능 효과성 (0.409)	6.09	+0.23

- 내부청렴도 점수는 7.12점으로 업무청렴지수(7.48점)가 청렴문화지수(6.68점)에 비해 0.80점 높은 수준

< 지수별 내부청렴도 >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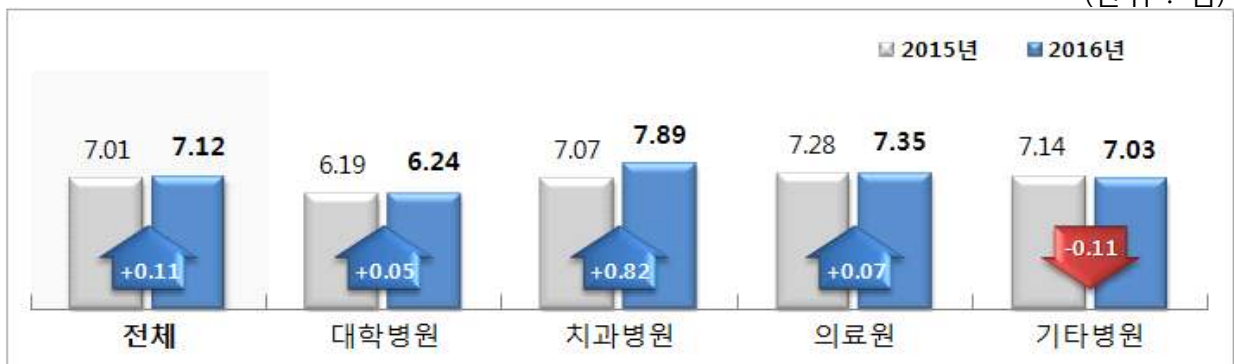


- 업무청렴지수는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된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항목이 7.16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
 - 인식영역 : 진료비청구(8.57점) > 의약품/의료기기 구매(8.08점) > 환자진료(7.66점) 순
 - 경험영역 : 진료비청구(7.17점) > 의약품/의료기기 구매(6.47점) 순
- 청렴문화지수는 조직문화(6.75점)가 부패방지제도(6.61점)보다 다소 높은 평가를 받음

- 기관유형별로는 치과병원(7.89점) > 의료원(7.35점) > 기타병원(7.03점) > 대학병원(6.24점) 순

< 유형별 내부청렴도 >

(단위 : 점)



< 내부청렴도 기관별·항목별 점수 >

(단위 : 점)

구분		전체	대학병원	치과병원	의료원	기타병원
업무청렴지수		7.48	6.53	8.09	7.75	7.33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7.16	6.12	8.01	7.48	6.71
인식	금전 수수 인식	7.92	7.01	8.60	8.20	7.61
	물품 수수 인식	8.50	7.84	9.07	8.68	8.41
	향응 수수 인식	7.92	6.83	8.83	8.23	7.60
	편의 수수 인식	8.21	7.15	8.89	8.52	8.00
	공통경비 협찬 수수 인식	7.89	6.73	8.55	8.22	7.90
	평균	8.08	7.12	8.79	8.37	7.89
경험	금전 수수 직·간접경험	6.60	5.57	7.85	6.92	5.74
	물품 수수 직·간접경험	7.00	6.19	7.68	7.28	6.30
	향응 수수 직·간접경험	6.06	5.03	7.19	6.35	5.57
	편의 수수 직·간접경험	6.78	5.54	7.57	7.20	6.06
	공통경비 협찬 수수 직·간접경험	5.86	4.53	6.74	6.27	5.42
	평균	6.47	5.38	7.42	6.81	5.82
환자 진료		7.66	6.75	7.98	7.94	7.64
인식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7.67	6.53	7.92	8.06	7.55
	환자 이익제기 수용·구제절차 충분성	7.63	7.19	8.08	7.72	7.81
진료비 청구		7.80	6.95	8.33	8.01	8.04
	진료비의 허위·부당 청구 인식	8.57	7.77	8.99	8.80	8.55
	진료비의 허위·부당 청구 경험	7.17	6.29	7.80	7.37	7.62
청렴문화지수		6.68	6.08	7.68	6.78	6.72
조직문화		6.75	5.98	7.67	6.94	6.61
	부당하거나 사적인 업무지시	7.04	6.64	7.62	7.13	6.92
	연고주의에 의한 인사관리	5.99	4.85	7.35	6.25	5.94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7.30	6.47	8.12	7.53	7.02
부패방지제도		6.61	6.18	7.70	6.62	6.84
	기관 운영의 투명성	6.96	6.66	7.96	6.94	7.14
	자체 감사기능 효과성	6.09	5.48	7.32	6.15	6.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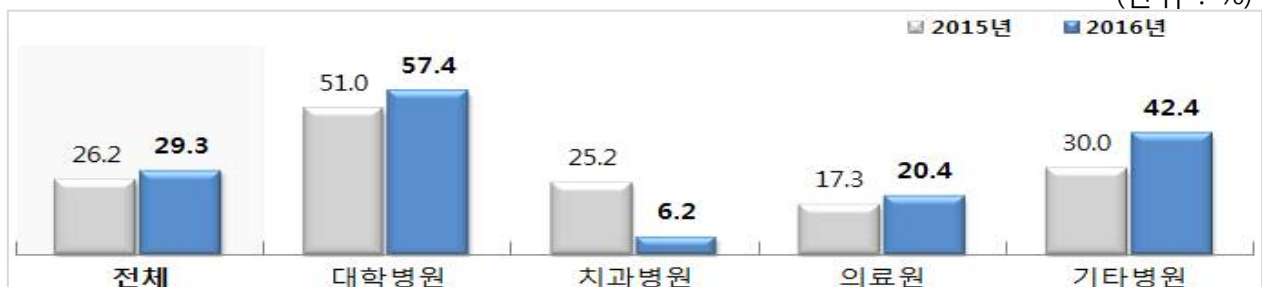
[내부청렴도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 경험률]

☐ 리베이트 ‘수수’ 경험(간접경험 포함)

- 의료기관 소속 직원의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 수수 경험률은 평균 29.3%이며, 기관유형별로 대학병원(57.4%) > 기타병원(42.4%) > 의료원(20.4%) > 치과병원(6.2%) 순으로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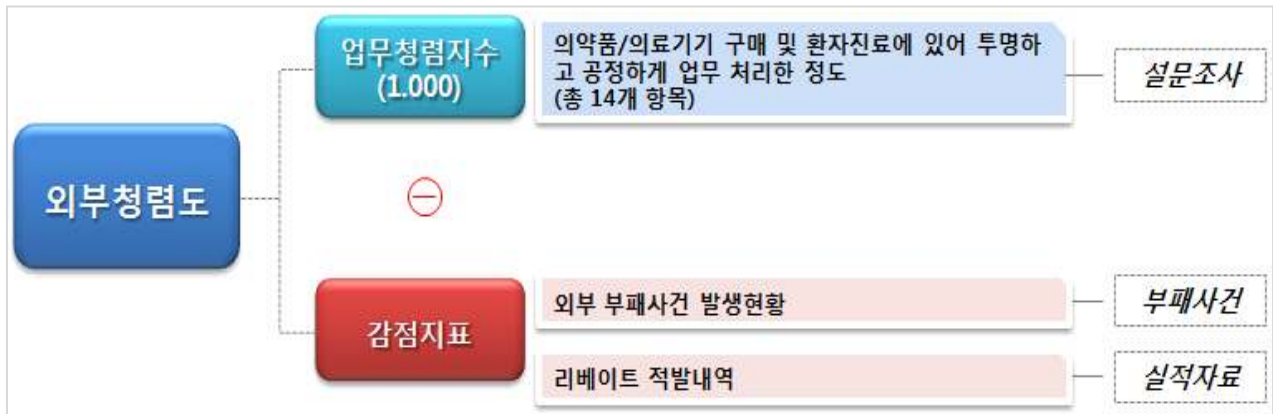
< 기관유형별 리베이트 수수 경험률 >

(단위 : %)



3. 외부 청렴도

- 외부청렴도는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체와 의료기관에 입원했던 환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청렴지수(총 14개 항목) 설문조사 결과에 외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 감점을 적용하여 도출



- 판매업체는 리베이트 제공 관련 경험 및 인식에 대해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영역 설문
- 환자 보호자는 ‘환자진료’에 대한 인식을 설문

< 외부청렴도 세부측정항목 현황 >

평가영역(가중치)			세부측정항목(가중치)	점수	‘15년대비
업무 청렴 지수 (1.000)	의약품/ 의료기기 구매 (0.506)	인식 (0.428)	금전 수수 인식 (0.216)	9.81	-0.04
			물품 수수 인식 (0.198)	9.83	-0.04
			향응 수수인식 (0.211)	9.75	-0.05
			편의 수수 인식 (0.196)	9.82	-0.03
			공통경비 협찬 수수 인식 (0.179)	9.87	+0.03
		경험 (0.572)	금전 수수 직·간접경험 (0.215)	9.78	+0.45
			물품 수수 직·간접경험 (0.195)	9.33	-0.67
			향응 수수 직·간접경험 (0.212)	9.33	0.00
			편의 수수 직·간접경험 (0.200)	9.78	+0.22
			공통경비 협찬 수수 직·간접경험 (0.178)	9.56	0.00
	환자진료 (0.494)	인식 (1.000)	안내절차 충분성 (0.239)	7.75	+0.04
			고가진료 유도·강권 경향 (0.285)	8.28	+0.12
			환자 이의제기 수용·구제절차 충분성 (0.256)	7.49	+0.19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0.220)	8.92	+0.49

- 외부청렴도 점수는 8.87점이며, '의약품/의료기기 구매'는 9.67점으로 '환자진료' 8.09점보다 높은 수준

< 외부청렴도 업무영역별 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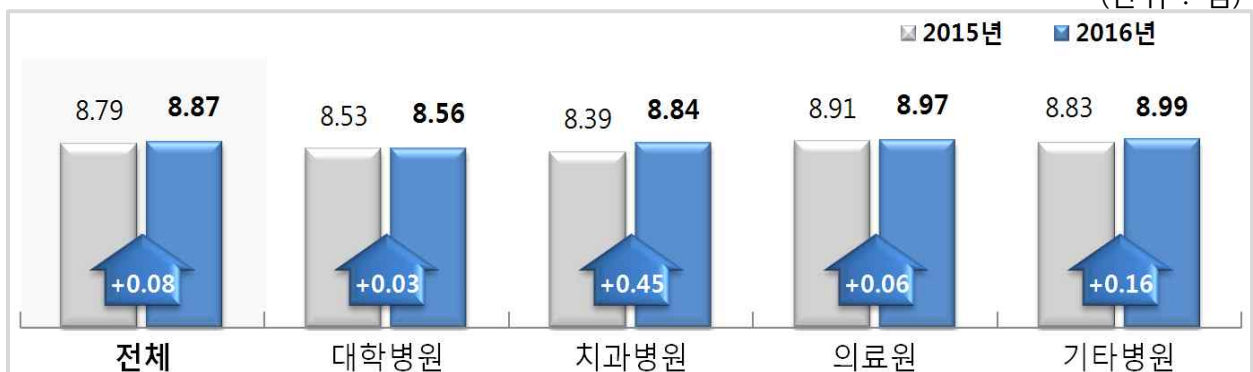
(단위 : 점)



- 기관유형별로는 기타병원(8.99점) > 의료원(8.97점) > 치과병원(8.84점) > 대학병원(8.56점) 순
-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 기타병원(9.82점) > 치과병원(9.79점) > 의료원(9.69점) > 대학병원(9.51점) 순
 - 환자진료 : 의료원(8.24점) > 기타병원(8.20점) > 치과병원(7.87점) > 대학병원(7.68점) 순

< 유형별 외부청렴도 >

(단위 : 점)



< 외부청렴도 기관별·항목별 점수 >

(단위 : 점)

구 분	전체	대학병원	치과병원	의료원	기타병원
외부청렴도	8.87	8.56	8.84	8.97	8.99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9.67	9.51	9.79	9.69	9.82
환자진료	8.09	7.68	7.87	8.24	8.20

□ 설문대상별 세부 분석

-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측정 결과, 판매업체 관계자는 9.67점으로 내부 직원(7.16점)과 정책고객(7.89점)보다 긍정적으로 평가
- 인식영역 평균점수(9.82점)가 경험영역 평균(9.55점)보다 높음

<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세부항목별 점수 >

(단위 : 점)

구 분		전체	대학병원	치과병원	의료원	기타병원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9.67	9.51	9.79	9.69	9.82
인식	금전 수수 인식	9.81	9.71	9.74	9.85	9.87
	물품 수수 인식	9.83	9.75	9.77	9.86	9.94
	향응 수수 인식	9.75	9.66	9.84	9.77	9.83
	편의 수수 인식	9.82	9.69	9.78	9.87	9.94
	공통경비 협찬 수수 인식	9.87	9.79	10.00	9.89	9.88
	평균	9.82	9.72	9.82	9.84	9.89
경험	금전 수수 직·간접경험	9.78	9.93	9.93	9.70	9.93
	물품 수수 직·간접경험	9.33	8.80	9.59	9.45	9.59
	향응 수수 직·간접경험	9.33	8.80	9.59	9.45	9.59
	편의 수수 직·간접경험	9.78	9.93	9.93	9.70	9.93
	공통경비 협찬 수수 직·간접경험	9.56	9.29	9.77	9.60	9.77
	평균	9.55	9.35	9.76	9.58	9.76

- ‘환자 진료’에 대한 환자 보호자의 응답 결과는 8.09점으로 내부 직원(7.66점)과 정책고객(5.82점)보다 긍정적으로 평가
- 세부측정항목 중 ‘환자 이의제기 수용·구제절차 충분성’(7.49점)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8.92점)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

< ‘환자진료’ 세부항목별 점수 >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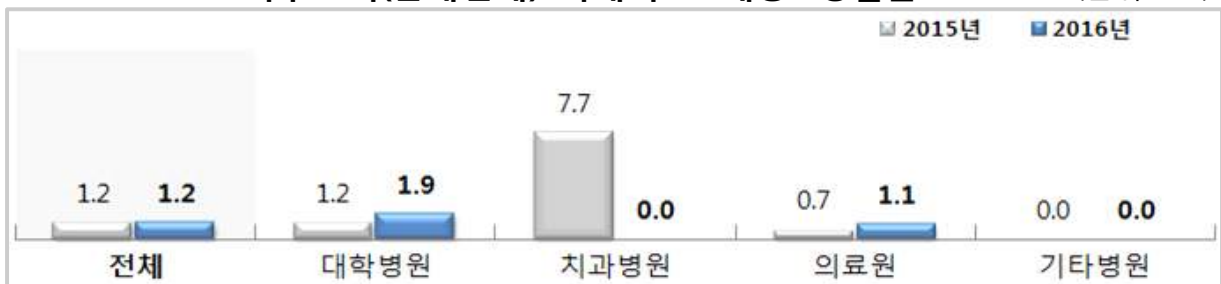
구 분	전체	대학병원	치과병원	의료원	기타병원
환자진료	8.09	7.68	7.87	8.24	8.20
안내절차 충분성	7.75	7.42	7.48	7.87	7.94
고가진료 유도·강권	8.28	7.62	7.84	8.52	8.55
환자 이의제기 수용·구제절차 충분성	7.49	7.10	7.39	7.64	7.40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8.92	8.73	8.88	8.98	8.94

[외부청렴도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 경험률]

□ 리베이트 '제공' 경험(간접경험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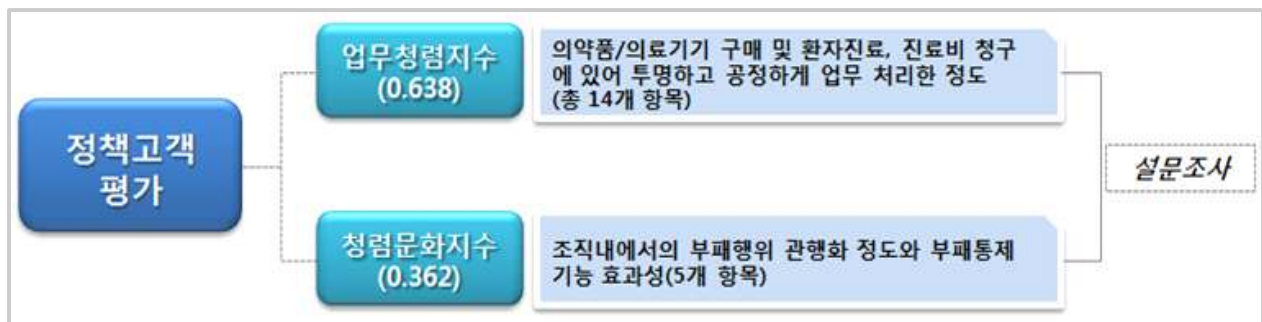
- 판매업체의 의약품·의료기기 판매 관련 리베이트 제공 경험률은 평균 1.2% 수준
- 기관유형별로는 대학병원(1.9%) > 의료원(1.1%) > 치과병원·기타 병원(0.0%) 순으로 집계

< 외부고객(판매업체) 리베이트 '제공' 경험률 > (단위 : %)



4. 정책고객평가

- 정책고객평가는 의료기관의 상위 관리·감독기관의 담당자와 이직·퇴직자를 대상으로 업무청렴지수와 청렴문화지수를 설문



- 관리·감독기관 업무 담당자는 업무청렴지수(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진료비 청구)와 청렴문화지수(부패방지제도) 등 3개 하위영역 설문
- 이직·퇴직자는 업무청렴지수(의약품/의료기기 구매, 환자진료, 진료비 청구)와 청렴문화지수(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등 5개 하위영역 설문

< 정책고객평가 세부측정항목 현황 >

평가영역(가중치)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15년대비
업무 청렴 지수 (0.638)	의약품/ 의료기기 구매 (0.442)	인식 (0.428)	금전 수수 인식 (0.216)	7.47	-0.73
			물품 수수 인식 (0.198)	8.16	-0.22
			향응 수수 인식 (0.211)	7.73	-0.43
			편의 수수 인식 (0.196)	7.95	-0.52
			공통경비 협찬 수수 인식 (0.179)	7.89	-0.53
		경험 (0.572)	금전 수수 직·간접경험 (0.215)	7.78	-0.90
			물품 수수 직·간접경험 (0.195)	8.20	-0.73
			향응 수수 직·간접경험 (0.212)	7.71	-0.77
			편의 수수 직·간접경험 (0.200)	8.28	-0.55
			공통경비 협찬 수수 직·간접경험 (0.178)	7.79	-0.75
청렴 문화 지수 (0.362)	환자진료 (0.284)	인식 (1.000)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0.664)	5.88	-0.86
	진료비 청구 (0.274)	인식(0.447)	환자 이의제기 수용·구제절차 충분성 (0.336)	5.69	신규
		경험(0.553)	진료비의 허위·부당 청구 인식 (1.000)	8.02	-0.87
			진료비의 허위·부당 청구 경험 (1.000)	7.89	-1.05
	조직문화 (0.513)		부당하거나 사적인 업무지시 (0.382)	5.49	-0.60
	부패방지제도 (0.487)		연고주의에 의한 인사관리(0.343)	4.33	-0.65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0.275)	5.93	신규
			기관 운영의 투명성 (0.591)	6.87	-0.66
			자체 감사기능 효과성 (0.409)	6.38	-0.28

- ※ 공통 설문항목은 관리·감독기관(0.556)과 이직·퇴직자(0.444) 점수 가중합산
 ※ 관리/감독기관 ①업무청렴지수는 의약품/의료기기 구매(0.617)와 진료비청구(0.383) 가중합산, ②청렴문화지수는 부패방지제도(1.000)으로 산출

- 정책고객평가 점수는 7.43점이며, 업무청렴지수는 7.83점으로 청렴문화지수(6.73점)보다 1.10점 더 높은 수준

< 정책고객평가 지수별 점수 >

(단위 : 점)



- 업무청렴지수는 진료비 청구(7.95점) > 의약품/의료기기 구매(7.89점) > 환자진료(5.82점) 순
- 청렴문화지수는 부패방지제도(6.67점)가 조직문화(5.21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이직·퇴직자의 설문결과는 5.85점으로 전년 대비 0.82점 하락하였으며, 관리·감독기관 담당자(8.70점)보다 매우 낮은 수준

< 측정대상자별 평가 비교 >

(단위 : 점)



- 기관유형별로는 치과병원(7.59점) > 의료원(7.55점) > 대학병원(7.15점) > 기타병원(7.09점) 순

< 정책고객평가 기관별·항목별 점수 >

(단위 : 점)

구 분		전체	대학병원	치과병원	의료원	기타병원
정책고객평가 점수		7.43	7.15	7.59	7.55	7.09
업무청렴지수		7.83	7.54	7.96	7.96	7.45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7.89	7.52	8.26	8.04	7.42
인식	금전 수수 인식	7.47	6.90	7.90	7.69	6.73
	물품 수수 인식	8.16	7.91	8.49	8.28	7.59
	향응 수수 인식	7.73	7.25	8.55	7.89	6.97
	편의 수수 인식	7.95	7.42	8.39	8.16	7.22
	공통경비 협찬 수수 인식	7.89	7.42	8.15	8.08	7.35
경험	금전 수수 직·간접경험	7.78	7.61	8.01	7.86	7.31
	물품 수수 직·간접경험	8.20	7.94	8.60	8.27	7.92
	향응 수수 직·간접경험	7.71	7.39	8.03	7.82	7.39
	편의 수수 직·간접경험	8.28	7.87	8.67	8.41	8.08
	공통경비 협찬 수수 직·간접경험	7.79	7.41	7.85	7.96	7.38
환자 진료		5.82	5.25	6.18	5.99	5.72
인식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5.88	5.04	6.12	6.19	5.50
	환자 이익제기 수용·구제절차 충분성	5.69	5.68	6.30	5.59	6.17
진료비 청구		7.95	7.76	7.79	8.06	7.61
진료비의 허위·부당 청구 인식		8.02	7.60	7.86	8.24	7.48
진료비의 허위·부당 청구 경험		7.89	7.89	7.72	7.92	7.72
청렴문화지수		6.73	6.47	6.92	6.83	6.47
조직문화		5.21	4.54	5.43	5.47	4.77
부당하거나 사적인 업무지시		5.49	4.84	5.38	5.81	4.61
연고주의에 의한 인사관리		4.33	3.47	4.78	4.62	4.06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5.93	5.46	6.30	6.05	5.89
부패방지제도		6.67	6.52	6.90	6.72	6.50
기관 운영의 투명성		6.87	6.86	7.10	6.89	6.49
자체 감사기능 효과성		6.38	6.03	6.60	6.47	6.49

[정책고객평가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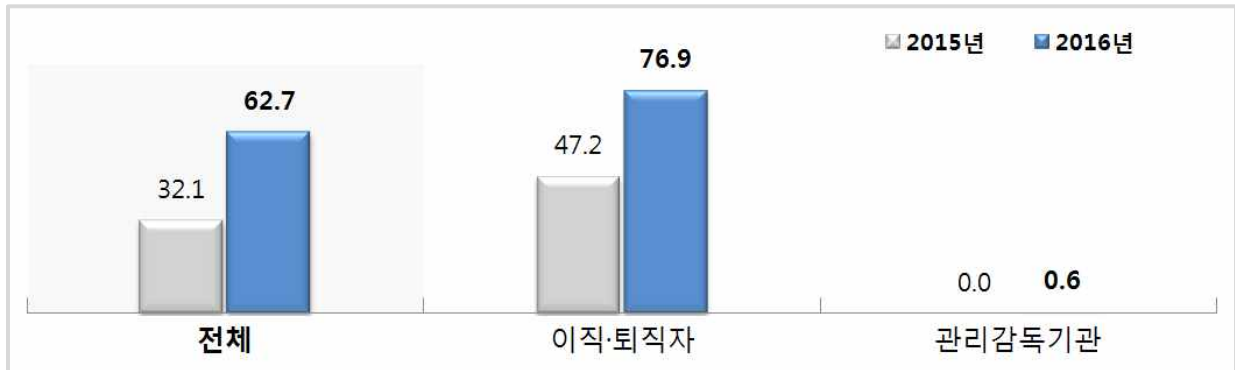
□ 리베이트 '수수' 경험(간접경험 포함)

○ 정책고객(이직·퇴직자, 관리·감독기관)의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 수수 경험률은 평균 62.7% 수준

- 이직·퇴직자의 76.9%가 리베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관리·감독기관의 경우 0.6%만 있다고 응답

< 설문대상자별 리베이트 수수 경험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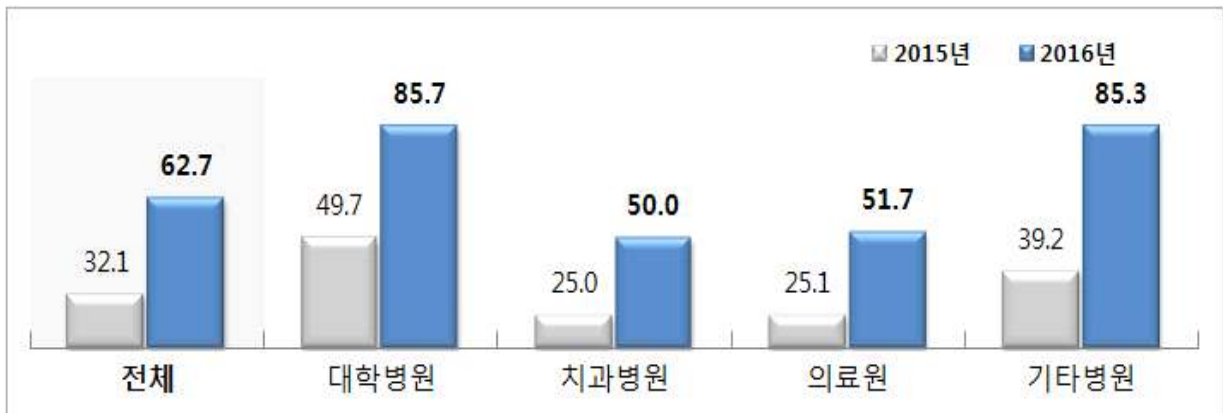
(단위 : %)



○ 기관유형별로는 대학병원(85.7%) > 기타병원(85.3%) > 의료원(51.7%) > 치과병원(50.0%) 순으로 집계

< 기관유형별 리베이트 수수 경험률 >

(단위 : %)



5. 감 점 지 표

- 감점지표는 부패사건 발생 현황, 진료비 과다청구, 리베이트 적발내역, 신뢰도 저해행위 등 4개 지표³⁾로 구성
- 45개 공공의료기관 중 42개 기관이 감점되었으며, 감점지표 중 신뢰도 저해행위가 평균 0.16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남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적용대상은 15개 기관으로 부패 사건 총 39건이 반영되었으며, 평균 0.11점 감점됨('15년 13개 기관 22건)
 - 부패유형별 발생률은 공금횡령·유용(34.2%, 13건), 직권남용(21.1%, 8건), 진료비 부당징수(21.1%, 8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금품수수 4건(10.3%) 반영
 - 감점수준이 높은 기관은 경상대병원(0.16점), 충남대병원(0.15점), 부산의료원(0.15점) 순

< 부패유형별 현황 >



※ 기타 부패유형 : 공용물 사적사용(1건), 예산 목적 외 사용(4건)

3) 지표별 최대 감점 : 부패사건 발생현황(0.17점), 진료비 과다청구(0.11점), 리베이트 적발내역(0.17점)

- 진료비 과다 청구 감점은 총 33개 기관에 반영되었으며, 과다 청구 내역이 있는 기관 당 평균 0.06점 감점
 - 감점수준이 높은 기관은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으로 각각 최대 감점인 0.11점 적용
-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베이트 적발내역에 따른 감점은 총 2개 기관에 반영되었으며, 기관당 평균 0.06점 감점
 - 감점 대상 기관은 경기도의료원(0.08점), 부산의료원(0.04점)
- 호의적 응답 유도행위 및 명부 중복·오기 등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은 총 36개 기관에 반영되었으며, 평균 0.16점 감점
 - 감점수준이 높은 기관은 원주의료원(0.60점), 부산의료원(0.42점), 보훈병원(0.42점) 순
- 기관 유형별 평균 감점은 기타병원(0.33점) > 대학병원(0.26점) > 의료원(0.21점) > 치과병원(0.12점) 순

< 감점지표별 적용 현황 >

(단위 : 점, 개)

	부패사건 발생현황		진료비 과다 청구		리베이트 적발내역		신뢰도 저해행위		평균 감점
	감점	기관 수	감점	기관 수	감점	기관 수	감점	기관 수	
총 계	0.11	15	0.06	33	0.06	2	0.16	36	
대학병원	0.14	5	0.10	10	0.04	1	0.10	9	0.26
치과병원	0.07	1	0.05	2	0.00	0	0.07	1	0.12
의료원	0.09	8	0.04	18	0.08	1	0.17	24	0.21
기타병원	0.08	1	0.08	3	0.00	0	0.33	2	0.33

III 이슈별 분석

□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부패 경험 증가

- 대표적 부패 취약분야인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 수수 경험률은 30.5%로 '15년(22.0%) 대비 8.5%p 증가하였으며, 설문대상자별 경험률도 전년 대비 상승 추세

※ 판매업체의 경험률은 1.2%로 전년 동일

- 이는 금년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의료분야의 리베이트 수수를 관례가 아닌 부패로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추정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리베이트 적발내역 감점에 반영된 리베이트 사건은 총 6건으로 '15년(4건) 대비 소폭 증가

- 이는 쌍벌제⁴⁾ 도입(「약사법」 개정, '10년) 등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공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측정 결과

-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점수는 6.83점으로, 치과병원(7.49점) > 의료원(7.02점) > 기타병원(6.63점) > 대학병원(6.12점) 순이며, '15년 시험 측정에 비해 내부직원(7.54점→7.30점)과 정책고객(6.61점→5.93점) 모두 악화

※ '15년은 '내·외부 관계자 청탁에 의한 부당한 업무처리'를 참고문항으로 측정

- 대학병원의 경우 규모가 크고 환자 수가 많아 부정청탁에 취약한 것으로 보이며, 관리·감독기관 직원들이 특히 부정적으로 응답

4) 「약사법」 등에 따라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 등이 의료인과 약사 등에게 제품사용의 대가로 금품 향응을 제공하면 제약사·업체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의료인 등을 모두 처벌하는 제도

IV 향후 계획

□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 '16. 12. 20(화)

- 공공의료기관 유형별 종합청렴도, 내부청렴도·외부청렴도·정책고객평가 점수 및 등급 발표

□ 측정결과의 환류 제고

- 각급기관별 청렴도 측정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 실적을 점검하여 법률적 의무사항(권익위법 제27조의3)의 이행력 확보
- 청렴도 측정 하위 기관 대상 간담회 등을 통해 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반부패 노력을 유도하여 자체 청렴 수준 제고
- 관계 기관에 불공정 리베이트 예방을 위한 정책 참고자료로 청렴도 측정결과 제공

구 분		기 관 명	
대학병원 (10개)		강원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치과병원 (3개)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의료원 (29개)	중앙 산하(1)	국립중앙의료원	
	지자체 산하(28)	경기도 의료원	서울특별시 의료원
		대구광역시 의료원	인천광역시 의료원
		부산광역시 의료원	
		강 원 도 강릉의료원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강 원 도 삼척의료원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강 원 도 속초의료원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강 원 도 영월의료원	제 주 도 서귀포의료원
		강 원 도 원주의료원	제 주 도 제주의료원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경상북도 울진군의료원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전라남도 목포의료원	
기타병원 (3개)		국립암센터	
		보훈병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원자력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 소속)	

1) 대학병원

(‘16년도 점수, ‘15년 대비 개선도)

구분	종합청렴도(10)	내부청렴도(10)	외부청렴도(10)	정책고객평가(10)
	평균 7.68, 표준편차 0.51	평균 7.12, 표준편차 0.68	평균 8.87, 표준편차 0.39	평균 7.43, 표준편차 0.64
1등급	- (8.45점 이상)	- (8.14점 이상)	- (9.46점 이상)	- (8.39점 이상)
2등급	- (7.94~8.45점 미만)	- (7.46~8.14점 미만)	- (9.07~9.46점 미만)	강원대학교병원(7.95점, +0.04) (7.75~8.39점 미만)
3등급	충북대학교병원(7.70점, +0.29) 제주대학교병원(7.59점, +0.32) (7.42~7.94점 미만)	제주대학교병원(7.13점, +0.72) 충북대학교병원(6.83점, +0.47) (6.78~7.46점 미만)	충북대학교병원(9.02점, +0.19) 서울대학교병원(8.79점, +0.14) 제주대학교병원(8.75점, +0.66) 강원대학교병원(8.74점, +0.23) (8.67~9.07점 미만)	충남대학교병원(7.51점, -0.45) 서울대학교병원(7.45점, +0.21) 부산대학교병원(7.37점, -0.56) 충북대학교병원(7.21점, +0.29) (7.11~7.75점 미만)
4등급	서울대학교병원(7.40점, -0.14) 강원대학교병원(7.22점, +0.21) 충남대학교병원(7.14점, -0.25) 경북대학교병원(6.99점, +0.47) (6.91~7.42점 미만)	서울대학교병원(6.77점, -0.07) 경북대학교병원(6.45점, +1.41) 충남대학교병원(6.37점, +0.15) (6.10~6.78점 미만)	경상대학교병원(8.48점, +0.10) 전북대학교병원(8.45점, -0.39) 충남대학교병원(8.44점, -0.23) 부산대학교병원(8.38점, -0.27) 전남대학교병원(8.33점, -0.31) (8.28~8.67점 미만)	전남대학교병원(7.08점, -0.22) 제주대학교병원(6.92점, -1.23) 경상대학교병원(6.87점, -0.60) 전북대학교병원(6.77점, -0.61) (6.47~7.11점 미만)
5등급	부산대학교병원(6.90점, -0.50) 경상대학교병원(6.85점, -0.19) 전북대학교병원(6.81점, -0.26) 전남대학교병원(6.39점, -1.10) (6.91점 미만)	경상대학교병원(6.01점, -0.12) 부산대학교병원(5.92점, -0.65) 전북대학교병원(5.87점, +0.35) 강원대학교병원(5.60점, -0.23) 전남대학교병원(5.43점, -1.56) (6.10점 미만)	경북대학교병원(8.25점, +0.19) (8.28점 미만)	경북대학교병원(6.39점, -1.02) (6.47점 미만)

2) 의료원

(‘16년도 점수, ‘15년 대비 개선도)

구분	종합청렴도(29)	내부청렴도(29)	외부청렴도(29)	정책고객평가(
	평균 7.68, 표준편차 0.51	평균 7.12, 표준편차 0.68	평균 8.87, 표준편차 0.39	평균 7.43, 표준편차 0.64
1 파괴	강원도 삼척의료원(8.64점, +0.20) 경상남도 마산의료원(8.46점, +0.07) (8.45점 이상)	강원도 삼척의료원(8.32점, +0.46) (8.14점 이상)	- (9.46점 이상)	강원도 삼척의료원(8.71점, -0.35) 강원도 영월의료원(8.57점, -0.17) 경상북도 포항의료원(8.43점, -0.75) 전라북도 군산의료원(8.41점, -0.24) (8.39점 이상)
2 파괴	전라북도 남원의료원(8.32점, +0.14) 경상북도 포항의료원(8.21점, -0.33) 제주도 제주의료원(8.20점, +0.12) 충청남도 서산의료원(8.14점, -0.01) 전라남도 강진의료원(8.12점, +0.03) 충청남도 공주의료원(8.12점, +0.35) 대구광역시 의료원(8.07점, -0.04) 전라남도 목포의료원(8.07점, -0.16) 경상북도 울진의료원(8.06점, -0.15) 강원도 강릉의료원(7.99점, +0.08) 경상북도 안동의료원(7.97점, +0.06) 전라북도 군산의료원(7.94점, -0.34) 충청남도 천안의료원(7.94점, +0.12) 충청북도 청주의료원(7.94점, -0.26) (7.94~8.45점 미만)	충청남도 서산의료원(7.87점, +0.13) 전라북도 남원의료원(7.86점, +0.32) 경상남도 마산의료원(7.80점, +0.06) 전라남도 강진의료원(7.70점, +0.74) 제주도 제주의료원(7.68점, +0.26) 충청북도 청주의료원(7.67점, +0.10) 대구광역시 의료원(7.58점, -0.22) 경상북도 포항의료원(7.55점, -0.43) 서울특별시 의료원(7.53점, +0.37) 충청남도 공주의료원(7.51점, +0.63) 충청남도 천안의료원(7.51점, +0.89) (7.46~8.14점 미만)	대구광역시 의료원(9.37점, +0.60) 전라남도 순천의료원(9.27점, +0.15) 경상남도 마산의료원(9.25점, +0.23) 충청남도 천안의료원(9.25점, +0.19) 경상북도 포항의료원(9.22점, +0.24) 전라남도 목포의료원(9.20점, +0.17) 경상북도 안동의료원(9.19점, +0.16) 서울특별시 의료원(9.19점, +1.02) 제주도 제주의료원(9.14점, +0.18) 충청북도 청주의료원(9.14점, +0.09) 인천광역시 의료원(9.13점, +0.17) 강원도 원주의료원(9.10점, +0.05) 강원도 영월의료원(9.08점, +0.19) 충청남도 공주의료원(9.08점, +0.12) 전라북도 남원의료원(9.07점, +0.29) (9.07~9.46점 미만)	전라남도 강진의료원(8.23점, -0.61) 경상남도 마산의료원(8.16점, -0.23) 강원도 강릉의료원(8.15점, +0.31) 충청북도 청주의료원(7.94점, -0.50) 경상북도 울진의료원(7.89점, -0.17) 전라북도 남원의료원(7.86점, -0.81) 충청남도 공주의료원(7.84점, -0.62) 전라남도 목포의료원(7.83점, -0.48) 강원도 원주의료원(7.77점, -0.21) (7.75~8.39점 미만)
3 파괴	강원도 영월의료원(7.90점, -0.36) 서울특별시 의료원(7.89점, +0.40) 인천광역시 의료원(7.84점, -0.26) 전라남도 순천의료원(7.78점, -0.40) 충청남도 홍성의료원(7.71점, -0.09) 강원도 속초의료원(7.48점, -0.13) 경기도 의료원(7.47점, -0.05) (7.42~7.94점 미만)	경상북도 울진의료원(7.45점, -0.23) 경상북도 안동의료원(7.44점, +0.40) 강원도 강릉의료원(7.43점, +0.22) 경상북도 김천의료원(7.40점, +0.03) 전라북도 군산의료원(7.39점, -0.41) 전라남도 순천의료원(7.32점, -0.15) 인천광역시 의료원(7.26점, -0.39) 경기도 의료원(7.25점, -0.43) 부산광역시 의료원(7.21점, +0.10) 전라남도 목포의료원(7.19점, -0.17) 강원도 속초의료원(7.10점, +0.78) 강원도 영월의료원(6.94점, -0.58) 충청남도 홍성의료원(6.93점, -0.50) 강원도 원주의료원(6.86점, +0.09) 충청북도 청주의료원(6.84점, +0.17) (6.78~7.46점 미만)	국립중앙의료원(9.03점, +0.13) 충청북도 청주의료원(9.03점, +0.23) 강원도 삼척의료원(8.98점, -0.08) 충청남도 홍성의료원(8.96점, +0.01) 경기도 의료원(8.92점, +0.31) 충청남도 서산의료원(8.90점, -0.09) 경상북도 울진의료원(8.89점, +0.09) 전라남도 강진의료원(8.84점, -0.25) 강원도 속초의료원(8.80점, -0.13) 부산광역시 의료원(8.80점, -0.21) 강원도 강릉의료원(8.76점, -0.16) 제주도 서귀포의료원(8.76점, +0.11) 전라북도 군산의료원(8.67점, -0.18) (8.67~9.07점 미만)	경상북도 김천의료원(7.65점, -0.74) 서울특별시 의료원(7.50점, -0.74) 충청남도 홍성의료원(7.48점, -0.91) 충청남도 서산의료원(7.40점, -0.19) 충청남도 천안의료원(7.34점, -0.91) 제주도 제주의료원(7.33점, -0.50) 대구광역시 의료원(7.31점, -0.85) 경상북도 안동의료원(7.21점, -0.72) 부산광역시 의료원(7.21점, -0.74) (7.11~7.75점 미만)
4 파괴	제주도 서귀포의료원(7.34점, -0.33) 강원도 원주의료원(7.29점, -0.02) 국립중앙의료원(7.26점, -0.29) 충청북도 청주의료원(7.24점, +0.02) 부산광역시 의료원(7.22점, -0.47) 경상북도 김천의료원(7.01점, -1.06) (6.91~7.42점 미만)	제주도 서귀포의료원(6.75점, +0.07) (6.10~6.78점 미만)	- (8.28~8.67점 미만)	경기도 의료원(6.96점, -0.04) 제주도 서귀포의료원(6.86점, -1.66) 인천광역시 의료원(6.86점, -1.36) 전라남도 순천의료원(6.71점, -1.40) 국립중앙의료원(6.68점, -1.26) 강원도 속초의료원(6.47점, -1.13) (6.47~7.11점 미만)
5 파괴	- (6.91점 미만)	국립중앙의료원(5.91점, -0.19) (6.10점 미만)	경상북도 김천의료원(7.03점, -1.94) (8.28점 미만)	충청북도 청주의료원(6.23점, -1.50) (6.47점 미만)

3) 치과병원

(‘16년도 점수, ‘15년 대비 개선도)

구 분	종합청렴도(3)	내부청렴도(3)	외부청렴도(3)	정책고객평가(3)
	평균 7.68, 표준편차 0.51	평균 7.12, 표준편차 0.68	평균 8.87, 표준편차 0.39	평균 7.43, 표준편차 0.64
1 등급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8.55점, +0.20) (8.45점 이상)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8.14점, +0.37) (8.14점 이상)	- (9.46점 이상)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8.64점, -0.77) (8.39점 이상)
2 등급	서울대학교치과병원(8.15점, +0.24) (7.94~8.45점 미만)	서울대학교치과병원(7.82점, +0.58) 부산대학교치과병원(7.71점, +1.52) (7.46~8.14점 미만)	- (9.07~9.46점 미만)	서울대학교치과병원(7.84점, -0.27) (7.75~8.39점 미만)
3 등급	부산대학교치과병원(7.70점, +0.52) (7.42~7.94점 미만)	- (6.78~7.46점 미만)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8.91점, +0.12) 부산대학교치과병원(8.84점, +1.23) 서울대학교치과병원(8.77점, +0.01) (8.67~9.07점 미만)	- (7.11~7.75점 미만)
4 등급	- (6.91~7.42점 미만)	- (6.10~6.78점 미만)	- (8.28~8.67점 미만)	- (6.47~7.11점 미만)
5 등급	- (6.91점 미만)	- (6.10점 미만)	- (8.28점 미만)	부산대학교치과병원(6.28점, -2.21) (6.47점 미만)

4) 기타병원

(‘16년도 점수, ‘15년 대비 개선도)

구 분	종합청렴도(3)	내부청렴도(3)	외부청렴도(3)	정책고객평가(3)
	평균 7.68, 표준편차 0.51	평균 7.12, 표준편차 0.68	평균 8.87, 표준편차 0.39	평균 7.43, 표준편차 0.64
1 등급	- (8.45점 이상)	- (8.14점 이상)	- (9.46점 이상)	- (8.39점 이상)
2 등급	- (7.94~8.45점 미만)	원자력병원(7.48점, +0.72) (7.46~8.14점 미만)	- (9.07~9.46점 미만)	- (7.75~8.39점 미만)
3 등급	원자력병원(7.89점, +0.36) (7.42~7.94점 미만)	보훈병원(7.22점, -0.50) (6.78~7.46점 미만)	국립암센터(9.04점, +0.09) 원자력병원(9.01점, +0.31) 보훈병원(8.92점, +0.07) (8.67~9.07점 미만)	국립암센터(7.48점, -0.41) (7.11~7.75점 미만)
4 등급	국립암센터(7.36점, -0.28) 보훈병원(7.28점, -0.46) (6.91~7.42점 미만)	국립암센터(6.40점, -0.53) (6.10~6.78점 미만)	- (8.28~8.67점 미만)	보훈병원(6.90점, -0.80) 원자력병원(6.89점, -0.84) (6.47~7.11점 미만)
5 등급	- (6.91점 미만)	- (6.10점 미만)	- (8.28점 미만)	- (6.47점 미만)